

## “역시 꿈을 품어야 해”

박동규 서울대 명예교수



설립자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서 회고사를 발표하는 박동규 교수. ©이내정

아산 정주영 탄신 100주년을 맞아 정주영 회장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지냈던 동안 잊히지 않는 사연이 있어 회장님의 큰 인간상에 작은 꽃다발을 올리고자 합니다.

회장님을 처음 뵈는 참으로 우연이었습니다. 1979년에 해변시인학교를 창설했습니다. 해변 조그마한 초등학교를 빌려 시인과 시를 좋아하는 이들이 숙식을 함께 하며 사박오일 동안 시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였습니다. 매년 이삼백 명의 참가자와 백여 명의 시인이 모여들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공터에 큼지막한 술을 걸고 장작으로 불을 지피 함께 나눌 먹거리를 마련했고, 교실 마룻바닥에 옹기종기 둘러앉아 밤새도록 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잠이 들곤 했습니다.

1985년 그해는 강릉에서 조금 올라간 주문진초등학교를 빌려 해변시인학교를 열었습니다. 교실에서 강의 진행을 보던 오후였습니다. 한 시인이 달려왔습니다. 회장님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회장님은 참가등록을 하기 위해 학교 현관에 놓인 책상 앞에 서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나도 시인학교에 등록할 수 있어요?”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등록비 이만 원을 내셨습니다. 회장님을 처음 뵈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시인학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들으시고 학교를 둘러보셨습니다. 그러다 별안간 운동장 한 곳으로 성큼성큼 가셨습니다. 젊은 참가자들이 손수레에 장작을 실어 취사장으로 나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큼지막한 손으로 장작을 들어 손수레에 싣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회장님, 젊은이들이 다 합니다” 말렸습니다. 회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작을 가득 실은 손수레를 끌고 취사장으로 가셨습니다. 흰 셔츠, 큰 운동화, 느슨한 바지를 입으신 회장님이 손수레를 끌고 가시는 모습을 한참이나 멍한 상태로 쳐다봤습니다.

그날 회장님에게 “어떻게 해변시인학교에 오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쭙었더니 “속초 갔다가 오는 길이었는데, 해변시인학교 현수막이 걸려 있기에 나도 잠시나마 시인이 되고 싶어 참가했다” 하시더군요. 그 후 회장님

은 제 어머님과 황금찬, 구상, 김광림, 김남조 시인 등과 함께 교실 바닥에서 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짧은 강연도 하셨습니다. “시인학교에 학생으로 참가해 인간의 진실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시인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또 “인간의 진정한 목표는 진실한 삶의 이상을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라고.

회장님은 매년 해변시인학교에 오셨습니다. 죽도초등학교에서였습니다. 식사시간이면 항상 식판에 음식을 손수 담아 들고 시인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셨습니다. 점심에 무국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은 국을 한 그릇 더 담아 드셨습니다. 회장님께 “맛있으세요?” 여쭙으셨습니다. 회장님은 크게 웃으며 “습습해서 맛있네” 하셨습니다.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가슴에 치밀었습니다. ‘습습하다’는 말은 북한 사투리입니다. 짜지도 맵지도 않고 굴곡이 없다는 뜻입니다.


“습습하다”는 말처럼 회장님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보편적 삶의 자리에 항상 계셨던 분입니다. 해변시인학교에서도 항상 누구에게나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어린 시인의 패기 어린 주장에도 귀를 기울이셨고, 한 끼의 따뜻한 식사를 늘 베풀었습니다. 마룻바닥에 앉아 시를 들으시며 아이처럼 좋아하셨습니다.

그해 밤공부가 끝나면 모든 시인들을 뿔집에 초대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회장님은 저녁을 드신 후 강릉으로 가셨습니다. 밤 열시에 가야 하는데 행사가 길어져 열한시가 되어갔습니다. 초조해서 운동장에 나왔습니다. 캄캄한 담장 옆에 회장님 차가 보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회장님이 모자를 눌러 쓰고 잠들어 계셨습니다.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늦어지니까 궁금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행사에 방해 될까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심부름 보낸 자식이 제시간에 오지 않는다고 이

름을 부르며 찾아 나선 아버지’처럼 진정한 마음으로 시인을 껴안아 주시던 일을 저는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억이 더 떠오릅니다. 만리포 해변시인학교에서였습니다. 회장님은 현대 신입사원과 시인학교 참가자들이 모여 저녁에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일정의 마지막 밤에 해양훈련을 받고 있는 파릇파릇한 현대 신입사원과 합동파티를 했습니다. 연극과 노래와 춤도 함께했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젊은 신입사원들에게 시인들의 창조적 상상력과 서정적 자아, 꿈이나 비유적 세계의 특이한 시각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회장님은 그 자리를 흐뭇한 모습으로 즐기면서 “역시 꿈을 품어야 해” 말하셨습니다.

장작이 가득 실린 손수레를 앞장서 끌고 가시던 모습과, 언제나 거리낌 없이 미지의 영역을 개척해 내시던 일, 솔직하고 꾸밈없는 인간됨과 ‘모나지 않은 정신’을 고향 냄새가 담긴 ‘습습하다’는 말 한 마디로 드러내신 회장님. 청년에게 시인의 창조적 시각과 상상력을 갖기를 당부하고, 나와 다른 이와와 관계에서 인간의 진실함에 대해 일깨워주신 회장님을 기억합니다. 손수레의 사연이나 ‘습습하다’는 말 한마디 그리고 시인과의 어울림은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회장님의 마음 깊은 곳에 담긴 인간적 진실함의 상징적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아직도 ‘현대’라는 두 글자만 보면 사무친 그리움이 울컥 솟는 것은 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한국 경제사에 큰 획을 그으셨 으면서도 언제나 따뜻함을 간직하고, 소탈한 웃음을 지으셨던 아산 정주영 회장님. 회장님의 삶의 철학은 아련한 그리움만이 아닌, 현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남겨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박동규 교수가 2015년 11월 24일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 탄신 10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한 회고사입니다(※ 관련기사 8~9p).

※본문의 보라색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점역(點譯)하였습니다.